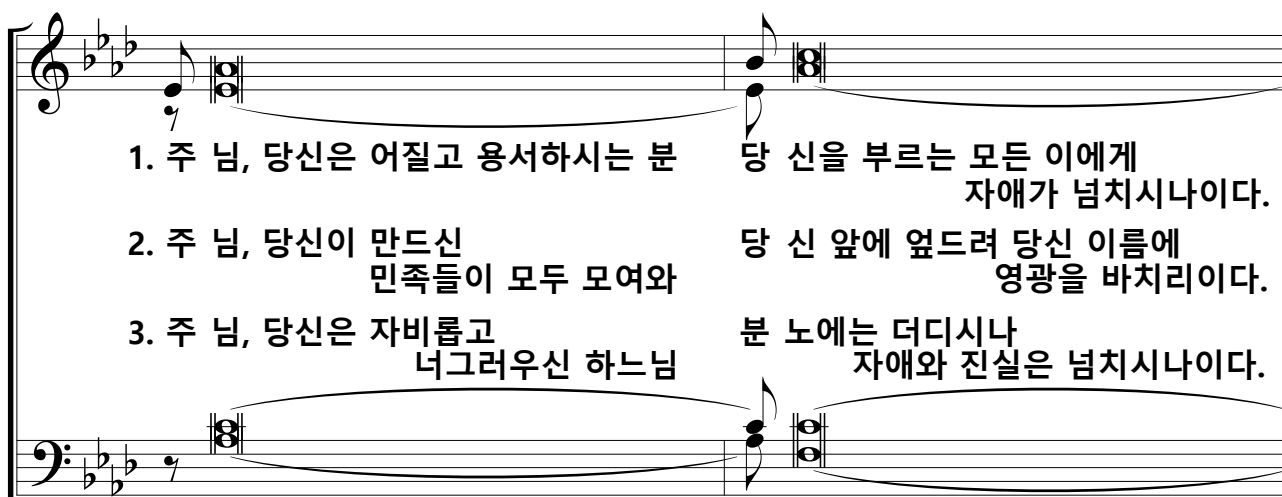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16 주일 화답송 [가해]

시 편 86(85), 5-6. 9-10. 15-16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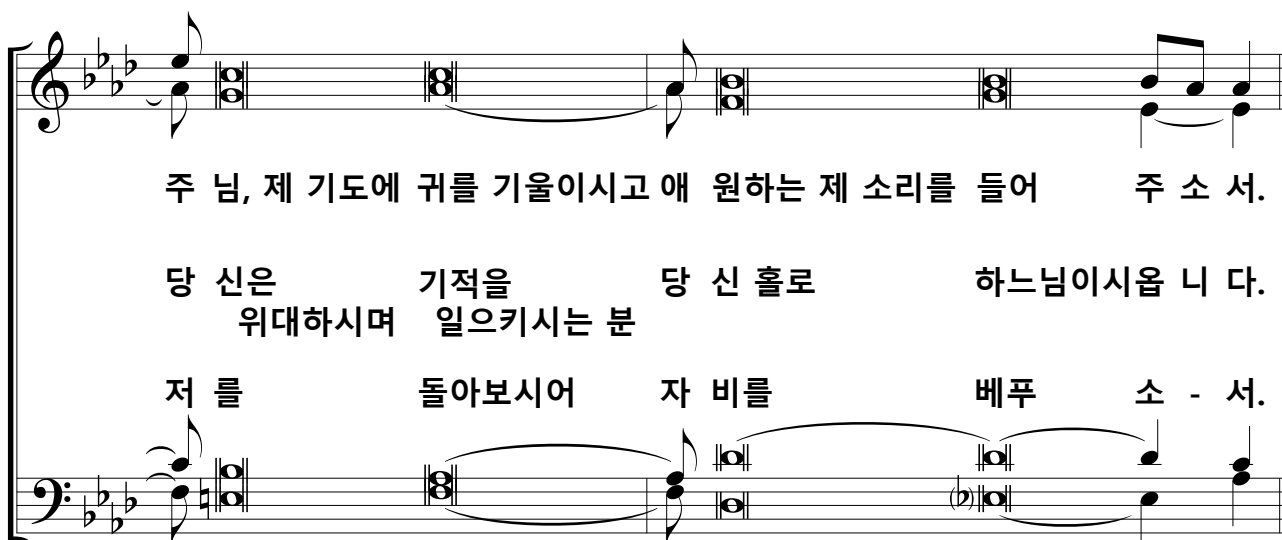
(후렴) 주 님, 당신은 어 질 - 고 용 서 하시는 분이시 옅 니 다.



1. 주 님,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 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
자애가 넘치시나이다.

2. 주 님, 당신이 만드신 당 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
민족들이 모두 모여와 영광을 바치리이다.

3. 주 님, 당신은 자비롭고 분 노에는 더디시나
너그러우신 하느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.



주 님,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 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 소 서.

당 신은 기적을 당 신 홀로 하느님이시옵 니 다.
위대하시며 일으키시는 분

저 를 돌아보시어 자 비를 베푸 소 - 서.

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

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, 찬미받으소서.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.